뉴진 스님에 MZ세대 열광…연등회 대미 장식

관서현보살·뉴진스님 EDM에 국적 넘어 모든 청년들 열광
비보잉, 연희단 공연도 호응

올 연등회, 연등놀이 끝으로 화려한 막 내리고 내년 기약

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불교 EDM 디제잉 공연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또한 지나가리, 고통을 이겨내! 극락왕생!"

올해 연등회는 끝까지 MZ세대를 열광케 했다. 서울 공평사거리를 가득 메운 MZ세대와 관람객들은 상월비보이 공연을 끊임없이 스마트폰에 담고, 각 사찰 연희단과 율동단의 몸짓에 어깨를 들썩였다. 연등놀이의 백미는 단연 '뉴진 스님(개그맨 윤성호 씨)'의 화끈한 불교 EDM(Electronic Dance Music) 디제잉 공연. 뉴진 스님의 춤과 디제잉에 심취한 젊은이들은 모두 손을 높게 들어 올리며 환희로움을 보였다.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황리에 개최된 연등회가 5월 12일 오후 7시 조계사 공평사거리에 열린 연등놀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내년을 기약했다. 연등회 개최 전부터 뜨거웠던 MZ세대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연등회 마지막까지 식지 않았다. 오히려 전날 우중으로 마음껏 펼치지 못했던 신심을 이날 모조리 터뜨리겠다는 듯 MZ세대는 열정적으로 연등놀이 공연을 즐겼다.

연등놀이의 시작은 전날 장엄한 연등행렬을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한 인사동 연등행렬이 알렸다. 안국동사거리에서 출발한 연등행렬은 인사동 골목을 지나며 다시 한 번 불자와 시민들에게 부처님 오심을 알렸다.

한 시민은 "어제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연등행렬을 직접 보지 못해 아쉬웠는데 짧게라도 연등행렬을 볼 수 있어 무척 다행"이라고 말하며 연등행렬에 손을 흔들어 보였다.

연등행렬 이후 본격적인 공연이 이어졌다. 상월비보이들은 부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심을 마음껏 춤으로 표현했고 그 열기를 고스란히 각 사찰 연희단과 연등회 프렌즈가 이어받으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달아올랐다.

그 다음은 화끈한 EDM 난장이 펼쳐지면서 모든 MZ세대들을 열광케 했다. 관서현보살(가수 서현진)은 아름다운 가창력을 선보이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선창했다. 이에 대중은 큰 목소리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따라 외치며 불교 EDM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다.

뉴진 스님은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MZ세대들의 큰 환호를 받았다. 한껏 기대감에 들떠있던 대중은 뉴진 스님의 디제잉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흥겨운 EDM 가락에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탔고 공연 중간에 환호성을 내지르며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뉴진 스님은 공연 중간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종교"라며 "우리 모두 깨닫는다면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말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곳곳에서 '재밌는 불교' 공연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스마트폰들이 하늘높이 뻗어졌고 공연 막바지에는 '앙코르'를 외치며 불교 EDM에 큰 호응을 보였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열정적으로 호응했던 대학생 김민준 씨(21)는 "뉴진 스님을 보러 왔다"고 밝히며 "SNS에서 본 것보다 더 신나고 재밌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깨달아 부처님이 되기 위한 종교라는 뉴진 스님의 설명이 마음에 와 닿았다.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태고종, 봉축법요식…"자타불이 잊지 말아야"

5월 15일, 양주 청련사서
사부대중 1000여 명 참석
불자청소년 5명에 장학금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과 사부대중이 삼귀의를 올리고 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지역사회 곳곳을 환하게 비추길 기원했다. 5월 15일 양주 청련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 찼다.

이 자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청련사 조실 해경 스님, 청련사 주지대행 심곡 스님 등 청련사 대중스님과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정성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함께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천상천하무여불(天上天下無如佛) 시방세계역무비(十方世界亦無比) 세간소유아진견(世間所有我盡見) 일체무유여불자(一切無有如佛者)'라는 부처님 탄생을 축원하는 게송을 읊으며 "하늘 아래 땅 위에 내가 최고란 뜻이 아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처럼 내가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으면, 나부터 남을 존중하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 모든 중생은 평등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진 스님은 또 보리심을 일구고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화엄경〉에 보면 어둠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등불이 아니면 볼 수 없고, 부처님 법이 아무리 좋아도 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알 수 없듯 법당에 찾아와 등불을 밝히는 불자들이 없으면 거룩한 부처님이 계셔도 빛이 나지 않는다"며 "오늘 여러분이 밝힌 등 덕분에 나뿐 아니라 모두가 환희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 복전을 잘 일궈 자비광명을 밝힌 공덕으로 늘 행복하고 즐겁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진 스님은 이날 불자 청소년 5명에게 각 50만원씩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처님의 자비를 몸소 실천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축사에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부처님오신날 표어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 영광스럽다. 양주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미래 청사진 실현에 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온 세상이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롭고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길 재차 다짐했다. 끝으로 참석대중은 석가모니불 정근과 부처님의 몸을 물로 씻는 관불의식으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의미를 되새겼다.

양주=김내영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에 '가교 역할' 주문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임 시민사회수석 예방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난 10일 취임한 전광삼 신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게 "대통령실과 종교계·시민사회 간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5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의 예방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스님은 "직책을 맡은 이상 여러 방면에서 살필 게 많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스님은 또한 "어렵지 않은 시절 없지만 지금은 특히나 더 어려운 시대"라며 "시민사회수석이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바탕으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과 조언대로 제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4년 승려연수교육

현대인을 위한 생활 수행과 포교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4차 산업혁명의 불교적 의미 고찰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마음과 과학
- 변화하는 시대의 사찰 운영 사례
- 세대별, 대상별 다채로운 법회프로그램 등

일 정 : 2024년 8월 28일(수) ~ 30일(금) 2박 3일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강사진 :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박종래 교수(서울대),
이창수 교수(경희대), 황수경 교수(동국대) 등
교육비 :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조계종 승려연수인증과정(30점)
정 원 : 50명 (선착순 마감)
문 의 : 031-470-3200 (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